

“우리도 함께 된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

“최고의 종합 컨설팅사 도약” 원대한 목표 향한 희망 질주

한국산업평가원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종합 컨설팅사로 도약하겠습니다.”

비영리 종합 학술연구 재단법인인 한국산업평가원이 ‘제 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최고의 종합 컨설팅사로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찬 질주에 나선다.

지난 2010년 설립된 한국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전략본부부를 비롯해 지역축제연구소, 농업유통연구 전략사업단, 평생교육사업단, 지역연구소, 리서치 센터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지역개발·지리학, 관광학, 사회복지학 석·박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원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과학 정책·전략경영 컨설팅 ▲마을가꾸기 역량 강화사업·농업유통 전략사업 등 농·산·어촌 지역개발 ▲공공서비스 요구도 요율 산정 등 원가계산 ▲교육사업(맞춤형 및 특성화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내부 전문인력과 팀간 협력수행을 강화하고 사회협력 등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평가원은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해 광주시 북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좌)한국산업평가원(원장 김재열) 임직원들이 ‘제 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를 통해 최고의 종합 컨설팅사로 도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은 ▲특별과정(석·박사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논문작성 노하우, 해양레저 창업과정, 이야기치료사 2급) ▲자격증반(공인중개사, 어린이 북아티스트, 피피미용사, 한방피피미용, 타이마사지) ▲교양반(디지털사진, 일본어회화, 천연비누 및 화장품만들기, 클래식 음악의 이해)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석·박사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논문작성 노하우, 해양레저 창업과정, 이야기치료사 2급 자격증 등 특별과정은 석·박사 과정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증반은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 이탈주민 등 직업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전문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원은 과정당 40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3월부터 6월까지 15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로우대와 기초생활,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사 등에게는 수강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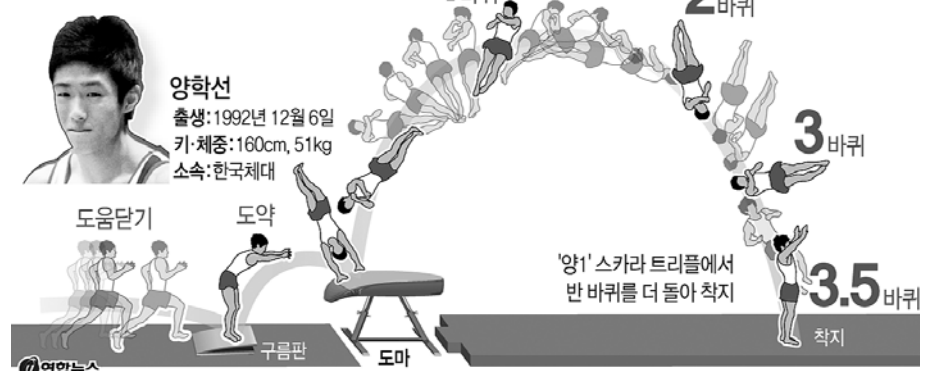
김재열 원장은 “임직원 모두가 최고의 종합 컨설팅사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도마神 양학선 신기술 ‘양3’ 개발

스카라 트리플서 반 바퀴 더 돌아

양학선 신도마기술 ‘양3’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계에 첫 금메달을 안긴 ‘도마의 신’ 양학선(21·한국체대)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장의 무기를 선보였다.

양학선은 27일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그에게 런던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기술종 하나인 ‘스카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신기술을 선보였다.

도마를 옆으로 짚고 세 바퀴를 비틀며 도는 기술인 ‘스카라 트리플’은 양학선의 전매특허인 ‘양학선’보다는 실수할 위험이 적어 안정적인 착지가 가능하다.

양학선은 원래 구름판을 정면으로 밟고 나서 세 바퀴를 돌고 착지하는 ‘양학선’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신기술을 연습했으니 50% 정도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술을 변경했다. 양학선은 기술을 선보인 뒤 “연습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성공률이 높은 편”이라며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했으니 60% 정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학선이 이 기술을 무사히 10월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완성해 신기술로 등재한다면 0.2~0.4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날 선보인 신기술은 ‘양학선 3’로 공식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광주 FC, 스트라이커 루시오 영입



루시오 김준엽 권용남

공격수 권용남·김준엽도

광주 FC가 사상 첫 승격을 위한 선수단 구성을 완료했다. 광주 FC는 27일 경남과 울산에서 활약한 한국형 스트라이커 루시오(28)와 지난 시즌 제주에서 뛰었던 김준엽(24), 권용남(27) 등 3명을 영입했다.

루시오는 지난 2010시즌 경남을 통해 K리그에 데뷔했으며 두 시즌 동안 42경기에 나와 21골을 터뜨렸다. 13개의 도움도 기록했다. 루시오는 2011년 울산으로 이적한 후 포지션 변화와 부상 여파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탁월한 스피드와 함께 문전에서 빠른 움직임으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날 오전 메디컬테스트를 받은 루시오는 곧바로 선수단에 합류해 3월16일 광주 홈 개막전 출격을 준비하게 된다.

광주는 또 수비수 이용을 제주로 보내고 공·수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권용남과 김준엽을 데려왔다. 단국대시절 공격수 유망주로 관심을 받았던 권용남은 제주와 천

안시청을 거쳐 다시 제주로 복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제주 입단 뒤 수비수 역할을 맡아 부진을 면치 못했던 권용남은 천안시청에서 13골7도움을 얻으며 다시 프로무대로 돌아왔다. 광주에서도 공격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김준엽도 뛰어난 체력과 패싱력이 장점인 공격수로 과감한 돌파와 많은 활동량으로 공·수에서의 역할 수행이 모두 가능한 선수다. 광주는 이번 이적을 끝으로 32명의 선수단 구성을 완료했다. 28일과 3월 2일 연습경기를 통해 전력을 가다듬게 되는 광주는 오는 3월 16일 홈에서 상주상무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행안내

해의 및 섬은 개개가 불거집니다. (육지기 만능)

- 3월 2일(토) ▲광주금당산악회 3월2일(토) 남원 문목봉 그리...

- 마마트 06:20, 남구의역 06:30, 영주체육관 06:40...

- ▲광주새무등산악회 3월3일(일) 총남 서산(황금산)...

- ▲수문사람들 3월12일(화) 봉영 소매물도, 상무지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들의 권익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성립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4 columns: No., Date, Location, and Remarks. Contains details for the 25th Annual General Meeting.

제5호 의안: 상근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승)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이사회부속위원회 구성의 건...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Includes contact info and a photo of a hiker.

Megabox advertisement for the movie 'The Way, Way Back' (분노의 율리우스). Includes showtim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